

# 미얀마 정부의 은행 개방 계획

(2014. 3. )

양곤사무소

## 1. 현지 은행 현황

□ 미얀마 현지은행의 총자산은 94억 달러('12년 기준)로 최근 5년 평균 40%대의 높은 성장세 지속

○ 공공 4개, 민간 22개 은행이 있으나, 상위 10개 민간은행 총자산이 전체의 90% 점유하며 소수 은행에 편중

○ 공공기관 및 대기업 앞 담보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 외환 거래 제약\*, 국제 금융시장 경험 부족 등 금융 발전 초기 단계

\* 미국은 '12년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일부 완화하였으나,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를 통해 금융 거래를 제한

- 은행 대출액 : 36억 달러(GDP 대비 7.1%)

- 은행 예금액 : 78억 달러(GDP 대비 15.5%)

### <미얀마 은행 설립 현황>

국가	은행수	은행명
국영	4개	Myanmar Foreign Trade Bank, Myanmar Investment & Commercial Bank, Myanmar Economic Bank, Myanmar Agriculture & Development Bank
민간	22개	Kanbawza Bank, Myanmar Citizens Bank, Co-operative Bank, Yadanabon Bank, First Private Bank, Myawaddy Bank, Yangon City Bank, Yoma Bank, Myanmar Oriental Bank, Tun Foundation Bank, Asian Yangon International Bank 등

## 2. 외국은행 진출 현황

□ 2011년 4월 민간정부 출범 이후 경제개혁 일환으로 금융시장 개방 추진

- 은행의 경우 금융시장 개방정책\* 중 1단계를 추진 중으로 현재 외국은행의 대표사무소 설립은 가능하나, 영업 행위는 불가

\* 1단계 사무소 개설 허용, 2단계 현지은행과 합작법인 설립 허용, 3단계 외국은행 (단독) 지점 설치 허용

- 미얀마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15개국 35개 외국계 은행이 사무소를 설립

- 미얀마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정책에 발맞춰 향후 영업점 설립 및 현지 영업활동 전개 계획

### <외국 은행의 사무소 설립 현황>

국가	은행수	은행명
한국	7개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일본	5개	Sumitomo Mitsui Bank, Bank of Tokyo-Mitsubishi, Mizuho Corporate Bank, Maruhan Japan Bank, Aeon Credit Service
싱가폴	4개	DBS Bank, United Oversea Bank, Overseas Chinese Banking Corp. (OCBC), E.sun Commercial Bank
태국	4개	Bangkok Bank, Siam Commercial Bank, Krung Thai Bank, Kasikorn Bank
말레이시아	2개	May Bank, CIMB
베트남	2개	BIDV, Vietin Bank
인도	3개	United Bank of India, Bank of India, Indian EXIM Bank
기타	8개	ICBC(중국), ANZ Bank(호주), Standard Chartered Bank(영국), First Commercial Bank(대만), AB Bank(UAE), National Bank(방글라데시), Brunei Investment Bank(브루나이), First Oversea Bank(바하마)

□ 다만, 외국 은행의 미얀마 진출을 위해 필요한 금융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고, 미얀마 정부의 진출 허용 시기도 미정인 상황

○ 만성적인 전력 부족, 통신망 미비, 정부 행정의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 등 낙후된 인프라는 현지 진출의 주요 장애 요인

○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증가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프라/자원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 비중은 4.3%에 불과하여 외국 은행의 영업 기반도 취약한 상황

\* 주요 외국인투자 산업 : 전력 46.4%, 석유가스 34.6%, 광업 6.9% 등

○ 특히 대기업 및 군부와 연결되어 있는 자국 대형 은행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진출 허용\*이 연기될 가능성도 존재

- 미얀마는 표면 상으로 '11년 떼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 정부가 등장하였으나, 군부 서열 1위인 탄쇄(Thein Shwe) 장군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은행 대부분은 군부 및 대기업 계열의 은행

\* 은행 감독기구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으로서 은행감독국 은행감독부가 금융기관 인허가, 규제, 검사 등 실시하고, 의결 기구는 미얀마 중앙은행위원회(Board of Directors)임.

### 3. 미얀마 정부의 은행 개방 계획

◇ 미얀마 정부가 2014년 중 5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만 영업점 설립을 인가할 계획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 은행 개방에 대한 미얀마 측 입장을 중앙은행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

\* 면담자 정보 : Mr. Kyaw Kyaw Maung 총재, Mr. Set Aung 부총재, Mr. Soe Min 부총재. Mr. Win Hteik 비서실장 등

□ (개방 시기) 현재 중앙은행, IMF, World bank와 개방 시기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올 상반기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

○ 개방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우선 기업금융이 개방되고 소매금융은 2~3년의 기간을 두고 개방 예정

□ (개방 방법) 2가지 개방 예비 방안 중 선정 예정이나, 외국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미얀마 금융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 (1안) 중앙은행이 개방 형식 및 기준 확정 후 입찰 선정

- 중앙은행이 입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JV, 자회사, 지점 중 하나의 형태를 지정)하고 입찰을 실시한 후, 외국은행의 제안서를 받아 적절한 은행을 선정

○ (2안) 중앙은행이 개방 형식 제한 없이 제안서 접수후 입찰 선정

- 중앙은행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JV, 자회사, 지점 중 외국은행이 자율적으로 진출 방법과 진출 계획, 현지 금융시장에의 기여 방안 등을 제안서를 제출하면, 중앙은행이 개별 제안서를 평가하여 선정

- (선정 절차) 외국은행 선정은 모든 은행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실시할 계획
  - (선정 기준)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와 협의하여 구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개략적으로 아래 4개 기준을 적용할 예정
    - 기술적 요건 : 재무지표, 건전성 등 정량적 요소
    - 사업계획 : 미얀마 금융시장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 국제적 기준 부합 여부, 영업 투명성, 경쟁력 등
    - 정치적 요소 : 국가간 관계
  - (국가별 우선 순위) ASEAN + 3 (한/중/일)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으며 미얀마 금융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이라면 이외 국가 은행이라도 선 배정 가능
    - 인가 은행 수 역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5~10개로 예상
- (경과 조치) 예비 선정된 은행은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갖고, 준비 상황 점검 후 영업 가능 판단시 실제 영업 개시할 수 있도록 인가할 계획
- (법률 개정) 미얀마 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제약\*이 있어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 중
  - \* 1주라도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는 외국인 회사로 분류되고 외국인 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외국은행의 부동산 담보 불가)
- Draft 작업은 완료되었고 현재 Attorney General office에서 검토 중이며, 이후 국회 승인 및 대통령 재가 되면 최종 완료